





서가풍경

찰나와 영원이 함께 숨쉬는 공간

사진평론가 김승근씨의 서가

책상 앞의 흰색 커튼을 열어 쫓히는 순간 얼음 알갱이처럼 투명한 겨울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빛은 두리번거리며 물체를 감각하기 시작했고, 감각하던 서재가 빛 속으로 서서히 인화되며 떠올랐다. 망막이 빛에 적응하고 서재의 전모를 파악하자 루돌프 아른하임의 《시각적 사고》, 조지 캐페쉬의 《시각언어》, 모리야마 다이도의 《사진이여 안녕》 같은 책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평론가 김승근씨(61, 계간 《사진비평》 주간)는 한켠에 놓인 의자에 앉아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의 사진론을 펼쳤다.

“사진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라는 사진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진의 힘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데서 나옵니다.”

사진평론가인 김씨에게 서재는 곧 암실이다. 숨어 있던 빛이 암실에서 되살아나듯, 그의 서재에서 사진은 잃어버렸던 본래의 의미를 되찾고 또 다른 의미를 획득한다. 창밖의 풍경과 물체들이 그의 거실로 끌려와 펜끝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그에게 서재는 필름 저편의 아득한 심연을 탐색하는 공간이다.

김씨에게 작년은 뜻깊은 한해였다. 제자들에게서 회갑기념 논문집을 헌정받은 것이다. 우리나라 사진비평의 1세대로서 그가 느끼는 감회는 남달랐을 테지만, 그는 연신 부끄럽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사진비평의 황무지를 일궜다는 자부심과 뿌듯함 같은 것이 서려 있다.

사진가는 찰나를 놓치지 않는다. 사진가에게 붙잡힌 찰나는 영원으로 남는다. 그가 사진의 길로 들어선 것은 사진의 이런 매력에 이끌려서가 아닐까. — 최갑수 기자

